



**우리와 함께한 한글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존재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대한민국을 세계 강국으로 만드는데  
더욱 중요한 몫을 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적인 것이 'KT, KT&G, SH공사'였는데 인터넷에서 찾아보고서야 나는 그것이 '한국통신, 한국담배인삼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영어 약자 표현이고 한국에서 공공연하게 그렇게 불리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이름도 영어식으로 짓는 추세를 이해할 만도 하나 대민업무를 맡고 있는 '공사(公社)'까지도 그런 이름을 써야 하는지 의문이 들 있었다. '하이 서울(Hi, Seoul)'도 마찬가지다. 세계화 시대에 발맞추어 영어를 쓰는 것이라 판단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한국어로 알려야 한국의 수도인 서울을 제대로 알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의 거리, 여러 곳을 둘러보고, 행사 이름이나 홍보를 위한 정책 등을 보면 그것 또한 영어 표현이 많았다. 청계천에서 감상했던 '하이서울 루체비스타(Hi Seoul lucevista)'도 이와 같은 경우이다. 무슨 뜻인지 몰라 찾아보니 빛을 뜻하는 'Luce'와, 풍경/전망을 뜻하는 'Vista'라는 이탈리아어 말이 합성된 단어였다. '빛의 잔치(풍경)'라는 쉽고 정겨운 우리말을 두고 굳이 외국어로 행사 이름을 정한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졌던 기억이 난다.

물론 명칭을 그렇게 만든 나름대로의 뜻이 있겠지만 대한민국 수도의 행정 기관에서 하는 행사인 만큼 외국어 사용에 신중하고 그것이 국민 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진정 교육적인지도

고민해 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동시에 세계인이 모여드는 한국을 위해서도 오히려 '우리의 언어'로 '우리'를 표현하는 것이 가장 '우리다운 것'이자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드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잘 알고 있듯이 '훈민정음해례본'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며, '한글'은 언어학 연구의 세계 최고 대학인 옥스퍼드 대학이 합리성, 과학성, 독창성, 실용성 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긴 결과 1등을 차지한 문자이다. 게다가 컴퓨터 자판에서 모음은 오른손으로, 자음은 왼손으로 칠 수 있는 유일한 문자이며, 이동전화의 한정된 자판을 가장 능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총아로 떠오르는 문자이다. 유네스코에서 문맹퇴치에 공헌한 단체나 사람에게 주는 상의 이름이 '세종'이고, 시카고 대학의 매콜리 교수는 10월 9일(한글날)이면 한국 음식을 먹을 정도로 한글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한다는데 정작 한글을 쓰고 있는 한국인들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다. 어쩌면 공기나 물처럼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항상 우리 곁에 있으니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 그 소중함을 잊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외국에서 재외동포 학생들에게 한국어를 가르



# 세계태권도연맹, 스리랑카 콜롬보 ‘태권도 케어스’ 프로젝트 개막식 성료



강석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총재 조정원) 스리랑카 ‘태권도 케어스’(Taekwondo Cares) 프로젝트 개막식이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총재가 참석한 가운데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지난 1월 25일 열렸다.

“챔피언을 향하여”라는 프로젝트 이름으로, 소외된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태권도 무상 교육 프로그램인 ‘2019-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케어스 프로젝트’는 WT가 주최하고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이 후원하며, ‘스리랑카태권도협회’가 콜롬보 인근 및 케갈레(Kegalle) 지역 태권도 단체들과 함께 지난 7월 2일부터 1년간 일정

으로 운영하고 있다.

콜롬보 시내 켈라니아(Kelaniya) 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개막식 행사에는 각계각층에서 수백 명이 참가했다. 참석자 중에는 결손가정 어린이 WT 케어스 태권도 교육생 83명(콜롬보 지역 남자 어린이 60명, 케겔레 지역 여자 어린이 23명)과 지난 12월 네팔 카트만두에서 열린 2019년 아시아경기 태권도 메달리스트 선수 전원이 참석했다.

아시아발전재단 재정 지원으로 WT는 현재 네팔, 캄보디아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1년 일정의 케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몽골과 인도네시아를 추가할 계획이다.

개막식 행사 특별 순서로 스리랑카 WT 케어스



▲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교육 참가자들의 태권도 시범

프로그램 교육 참가자 83명 전원의 태권도 시범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의 많은 박수를 받았다.

개막식 행사 중 WT 케어스 프로젝트 참가자 남자 어린이 1명과 여자 어린이 1명이 자신들의 태권도 교육 소감을 발표했다. 두 어린이 모두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시아발전재단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조정원 총재는 개막식 행사에서 칸차나 자야라트나(Kanchana Jayarathna) 스리랑카태권도협회장에게 감사패와 ICKC 및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가 조성한 ‘태권도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조 총재는 또한 2019남아시아경기 태권도 메달리스트 전원에게 감사장을 그리고 스리랑카태권도협회 및 체육계 인사들에게 WT감사장을 전달했다.

조 총재는 개막식 인사말에서 “스리랑카 태권도 케어스 프로젝트에 도움을 주고 있는 스리랑

카태권도협회와 아시아발전재단에 감사를 드리며, 세계태권도연맹은 앞으로 스리랑카에서 더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권도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케어스 프로그램 참가자 모두가 좋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여러분들 중에서 국제태권도선수권대회 챔피언이 나오기를 바란다. 인류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력의 일환으로 WT는 전 세계 난민, 고아 및 자연재해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다”고 조 총재는 전했다.

지난 1월 24일, 조 총재는 스리랑카 국회의사당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대통령을 역임하고 지난 11월 국무총리로 임명된 마힌다 라자팍사(Mahinda Rajapaksa)와 면담하였다. 이 자리에서 조 총재는 스리랑카 국무총리에게 WT명예단증을 수여했다. 명예단증 수여 직전 태권도복을 입고 라자팍사 국무총리가 송판을 격파하였으며 이 격파 장면이 스리랑카 모든 주요 방송을 타서 스리랑카 전역에 방영되었다.



▲ ICKC 및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의 ‘태권도발전기금’을 전달하는 조정원 총재



◀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右)에게 태권도 명예단증을 수여하는 조정원 총재(左)

스리랑카 체류 중 조 총재는 수레스 누브라마니암(Suresh Subramaniam) 스리랑카 국가올림픽위원회 위원장과 사마싱헤(D. M. Samashinghe) 켈라니아 대학 부총장과 면담했다. 면담 자리에서 “스리랑카 정부는 조만간 국립체육대학을 설립하고 여기에 태권도 전공이나 학과를 개설하고, 켈라니아 대학교도 태권도 전공을 조만간 설립할 계획”이라고 조 총재에게 말했다.

우스(Olympic House)에서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스리랑카 국가본부’ 결성식 행사도 열렸다. 조 총재는 UN가맹 국제 NGO단체인 서울에 본부를 둔 GCS클럽 국제본부 총재를 지난 2006년부터 맡고 있다. 결성식 행사에서 조 총재는 제1대 GCS스리랑카국가본부 총재로 임명된 칸차나 자야라트나(Kanchana Jayarathna) 스리랑카 태권도협회장에게 인준패와 GCS 깃발을 전달했다.



또한 지난 1월 23일, 스리랑카NOC 올림픽하



▲ 스리랑카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 개막식 단체 기념 촬영

## 러시아 국민 조각가, 고려인 박엘자



서지연

러시아한글학교협의회 회장, 바로네즈한글학교 교장

바로네즈에 온 지 10년이 되었다. 한국인이 한 명도 없는 이곳이었기에 먼저 러시아어를 익히고 자 대학원에 입학하여 이중언어를 전공하면서 세 아이들을 키우며 열심히 살았다. 이제 바로네즈는 제2의 고향이자 주요한 삶의 터전이 되었다. 처음에 러시아어가 능숙하지 못해 소통이 안 되었던 많은 고려인들과 함께 하며 한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많은 고려인 중에 소개하고 싶은 유명한 예술가 한 분이 있다. 바로 러시아 국민 조각가인 박엘자 선생님이다. 선생님은 1942년 우즈베키스

탄에서 태어나 1964년, 그곳에서 예술전문대학을 마친 후, 1970년까지 레닌그라드(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회화와 조각을 공부했다. 1974년에는 소련 예술가 협회 정식 회원이 되었고 국가의 요청으로 바로네즈로 이주해서 45년째 살고 있다. 선생님에게 바로네즈는 제2의 고향이자 그의 작품을 담은 거대한 박물관이다. 그만큼 바로네즈 곳곳에 영구 전시된 그 분의 조각품이 70%를 넘을 정도로 많다. 작년 12월 14일, 선생님의 자택에서 진행된 인터뷰 형식으로 박엘자 선생님의 예술과 삶을 소개하고자 한다.

**문 : 40년 넘게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할 수 있는 원동력과 함께 선생님의 작품을 몇 가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 저희 가족은 남편, 저, 큰 아들 막심, 둘째 아들 알렉세이, 딸 나타샤, 그리고 며느리까지 모두 예술가들입니다. 처음 바로네즈에 정착을 했을 때는 작품 활동을 남편과만 했지만 세 자녀들도 화가, 조각가가 되어 가족을 뛰어넘어 함께 작품을 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저의 말이면 고분고분하던 아들, 딸이 이제는 한 작품을 구상하면 자신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더 많이 냅니다. 저희 가족이 유일하게 논쟁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바로네즈에 훌륭한 조각품들이 계속 세워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저의 가족 덕분입니다. 바로네즈 곳곳에 푸쉬킨, 블라토노바 등 러시아 문학가들의 동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작품들에 특별히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이 작품들을 통해서 러시아 문학의 전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1990년 말에서 2000년 초에 정교회 신자가 되었는데 그 후 가족과 함께 카페드랄나야 성당 앞에 큰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중앙에 세워진 기념비는 저와 남편의 작품이며, 4개의 천사는 큰 아들 막심의 작품입니다.



**▲ 바로네즈 곳곳에 영구적으로 전시된 박엘자와 가족들의 작품들**

왼쪽 아래가 바로네즈 인형 극장 앞 마당의 〈하얀 개 빔〉인데 모든 어린이들의 우상이다. 수년 전 빔의 귀가 누군가의 실수로 떨어져 나간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날 수십 명의 아이들이 빔 앞으로 몰려들어 우는 바람에 서둘러 귀를 수리해야 했던 일화가 있다. 오른쪽 바로네즈 성당 앞 마당의 거대한 성자의 조각상과 천사는 박엘자 가족의 가장 자랑스러운 작품 중 하나이다.

**문 :** 한국어로 <고려인 희생자 추모비>라고 적힌 이 작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한국어는 직접 쓰신 것인가요?

**답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어를 올바르게 썼나요?

**문 :** (글씨에 실수가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다. 작품은 훌륭하고 정교했다. 그리고 몽클했다.) 한국어를 어릴 때 배우셨나요? 이 작품을 어떤 의미와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답 :** 이 작품은 1937년 스탈린 강제 이주 역사를 담은 작품입니다. 저는 그 사건 이후인 1942년에 태어났지만 그 일을 직접 겪으신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역사에 대해 생생히 들었고 비참했던 고려인 역사를 직접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친척들은 우즈베키스탄 토이주베 지역에 정착했고 죽을힘을 다해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집단 농장(칼호스)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한국어를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고 한국 명절을 보내고 밥에 물을 말아 먹고 김치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한국어를 그 후에 더 이상 사용할 기회가 없었고 우즈베키스탄을 떠난 후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아 지금은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작품 <고려인 희생자 추모비> ▶

**문 :** 2019년 6월에 바로네즈 예술가 협회 후원으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작품들이 전시되었고 가장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어떤 것입니까?

**답 :** 제 작품뿐만 아니라 딸 나타샤의 작품을 함께 전시했습니다. 그래서 가족 전시회가 되었습니다. 나타샤는 그래픽을 전공했고, 현재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개하고 싶은 작품은 제가 한국 역사 영화 <광해, 왕이 된 남

자>를 보고 큰 감동이 되어서 만든 작품입니다. 작품에 한국을 담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0년대 초에 한국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조국이구나',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거리거리마다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저에게는 조국이 3개입니다. 제가 태어난 우즈베키스탄이 제 고향입니다. 저의 피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은 저의 태생적인 고향입니다. 또 하나의 고향은 러시아입니다. 저는 한국인이자 러시아 사람입니다. 저의 모든 가족들도 그러합니다.



◀ 작품 <광해, 왕이 된 남자>  
앞에 선 박엘자

러시아가 자랑하는 국민 조각가 고려인 박엘자와의 인터뷰였다. 그러나 정작 이 만남을 통해 아내로서의 박엘자, 삼남매를 훌륭히 키운 엄마로서의 박엘자, 손주들에게 김치에 밥을 차려주는 할머니로서의 박엘자 그리고 작품에 역사와 조국을 새기는 한국인 조각가 박엘자를 만났다.

인터뷰 중 자신이 한국어를 못하는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이것이 험난한 세월을 지나온 고려인 역사의 아픔이다. 그러나 박엘자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모든 삶에는 그리운 고국, 한국의 희로애락이 새겨 있었다. ■■■■■■■■■■



## ICKC 재외동포유학생 장학 사업 및 2020년 수상자 안내

해외 각지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는 한국 문화의 세계적 전파와 교류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입니다. ICKC는 창립 이래 각국의 재외동포사회 및 한글학교, 태권도학교 등의 현지 교육기관과 소통하며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ICKC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ICKC 재외동포유학생 장학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장학 사업은 국내 대학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전공하는 우수한 재외동포 유학생을 선발하여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그들의 성공적인 학업 수행을 도우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이들 장학생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우리 사회와 동포사회를 잇는 믿음직한 가교(架橋)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장학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후원을 기다립니다.

### 〈수상자 이력〉



성명     아브둘라조노브 아자맛(ABDULLAJONOV AZAMAT)  
국적     우즈베키스탄  
생년월일  1996년 12월 13일  
소속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경영학과 재학 (2017년~현재)

### 주요 이력

- 우즈베키스탄 전문고등학교 졸업(2012~2015년)
- 안산시 상록구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활동(2018년~현재)
- NCS 노바스쿨 도장공사 업체 인턴(2019년)
- '경찰의 날' 감사장 표창(2019년 10월)
- 러시아어, 우즈베크어(모국어) / 한국어(TOPIK 5급, 유창)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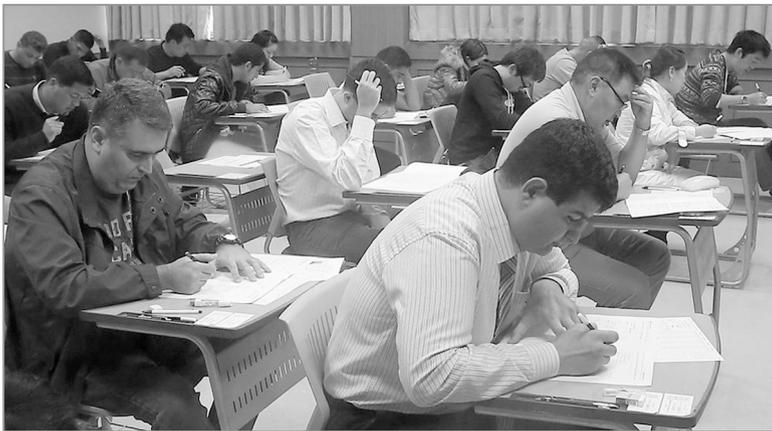
## 2022년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에 말하기 평가 도입한다

2022년부터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 말하기 평가가 도입된다.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김영곤)은 세계 주요 언어 평가가 의사소통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 맞춰 올해 말하기 평가 제도를 마련해 모의 시행하고 2021년 시범 도입한 후 2022년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시험은 수준에 따라 토픽 I (1~2급)과 토픽 II (3~6급)로 나뉘며, 6급이 가장 높은 급수다. 현재는 듣기·읽기·쓰기 등 3가지 영역만 평가하고 있다. 연필이나 펜으로 종이에 답을 쓰는 형식의 지필시험에서 인터넷기반시험(IBT·Internet Based Test)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시험 후 성적발표까지 기간이 현재 47일에서 14일로 단축돼 시험횟수도 연 6회에서 크게 늘어나 응시기회가 크게 확대된다. 국립국제교육원 관계자는 “이 같은 방식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편의성이 향상되면 2019년 37만5천명이었던 응시자가 2022년에는 7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기사 출처]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2020년 2월 26일



▲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보고 있는 외국인들



## 세계태권도연맹 시범단, 이탈리아 경연프로그램 결선 진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이 이탈리아 경연 프로그램인 ‘갓 탤런트(Got Talent)’ 본선에 서 골든 버저를 받아 3월 로마에서 열리는 결선에 자동 진출했다.

1월 17일 WT 시범단은 지난해 6월 이탈리아 6개 도시 투어와 로마 월드태권도 그랑프리 시리즈에서 환상적인 시범을 펼친 이후 이탈리아태권도협회의 참가 권유를 받아 경연에 참여하게 됐다.

WT 시범단이 참가한 본선 프로그램은 현지시간 1월 15일 이탈리아 전역에 방영됐다. 2009년 12월 파일럿 에피소드가 방영된 이래 현재 10번째 시즌이 방영되고 있는 ‘갓 탤런트’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리얼리티 경연 프로그램이다.

경연장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관객은 WT 시범단의 고난도 격파술, 공중회전과 화려한 군무에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네 명의 심사위원도 WT 시범단의 경연 내내 감탄사를 쏟아냈다.

3월 6일 로마에서 열리는 결선에는 WT 시범단을 포함해 모두 12개 팀이 진출했다. 우승팀은 10만유로(약 1억 3천만 원)의 상금도 받는다.

[기사출처]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20년 1월 17일



▲ 이탈리아 ‘갓 탤런트’에서 경연 중인 WT 시범단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 2019년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공연 관람

2019년 12월 19일(목), 본회가 문화교류사업의 일환으로 후원한 마리소리음악연구원의 ‘어울사랑 송년음악회’ 공연을 관람했다.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본 공연은 실내악단 어울림의 연주와 함께 한국 전통춤, 퓨전 음악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고, 우리문화의 멋과 소중함을 새삼 깨닫게 된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 즐겁게 공연을 관람한 회원들은 서로 감사 인사를 전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것을 기원하며 자리를 마쳤다.



### ICKC 2020년 문화탐방 프로그램 안내

날짜	탐방 내용	비고
4월 16일(목)	국립중앙박물관 정원에서 보물찾기	서울
5월 21일(목)	북촌한옥마을	서울
6월 18일(목)	세종대로 한글 가온길 코스	서울
8월 중	홍천 마리소리 축전	홍천
9월 17일(목)	양천로에서 만나는 견재정선 이야기	서울
10월 15일(목)	전통시장 힐링로드	서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교류활동(국외 탐방) 또한 계획 중입니다. (일정 및 프로그램 확정 뒤 추후 안내)

〈참가신청 및 문의〉 사무실 02-2285-1070 휴대전화 010-3531-3494 (최영옥 사무국장)

### 2019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19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문영호, 박경명, 박기연, 박관용, 박미화, 박원출, 박의근, 배대환, 성효동, 손희정, 심의표, 양경옥, 유영찬, 유자효, 윤문원, 윤윤식,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효정,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추호석, 최춘이, 표재순, 하 전, 허원준,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포스젯한도, (주)P&H

(가나다순, 2019년 1월 1일 ~ 2019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41,910,000원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 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산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원,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 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 사 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 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 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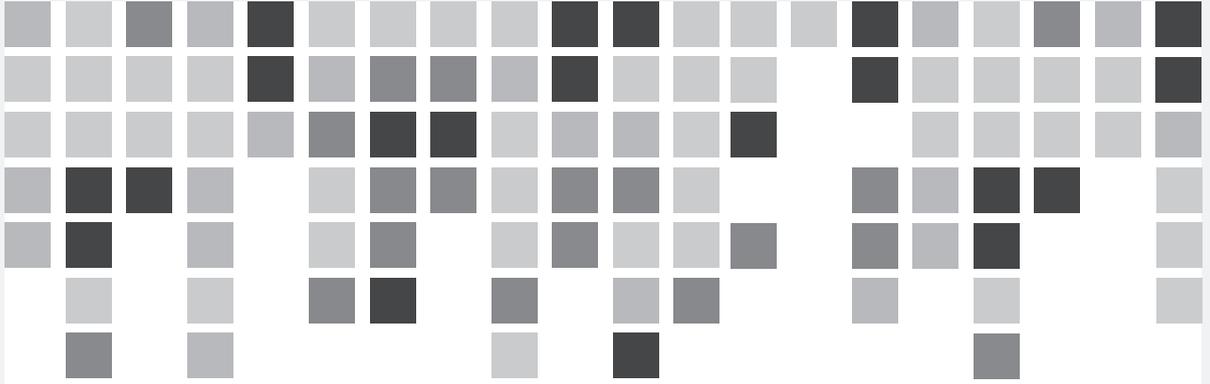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